

대중의 과학화, 소통에서 시작합니다

《개미제국의 발견》의 저자 최재천 교수



견)은 우리 출판 시장의 미개척 분야를 탐험하는 시초가 되었고, 지금도 독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의 자리에 오른 것만은 분명하다.

스테디셀러의 시작, 소통

언뜻 보기에 《개미제국의 발견》은 개미도감처럼 보이지만, 목차만 보더라도 생각은 달라질 것이다. 단순 반복적일 것 같은 개미사회를 경제와 문화, 정치로 구분해 정리함으로써 개미사회, 최 교수의 표현처럼 ‘개미제국’을 내밀하게 고찰한 인문서임을 단박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출간 당시 제자들이 ‘과학책’이라고 하지 말고 인문서라고 했으면 더 잘 팔리지 않았을까요?’ 라고 진지하게 묻기도 했다”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사실 과학책, 인문서라고 하면 많은 독자들이 손사래칠 지도 모른다.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운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선입견 혹은 그간의 경험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재천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과학책도 그렇고 인문서 역시 “(독

흔히 최재천 교수를 가리켜 ‘과학 대중화의 전도사’라고 부른다. 실제로 그렇다. 그가 1999년 선보인 《개미제국의 발견》을 시작으로 일반 독자를 지향한 과학교양서들이 출판시장에 줄지어 등장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과학책 시장 자체가 없던 시기에 첫 시도라는 점을 언론이 조명해 준 덕을 조금 본 것”이라고 겸손해 한다. 여하튼 《개미제국의 발

자들에게) 읽히려면 달라야 한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쉽게 쓰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 교수는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이것저것 빼는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의 진짜 알맹이가 빠지는 우를 범하는 것을 경계한다. 알맹이

최재천

서울대학교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생리학 석사, 하버드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개미제국의 발견》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대담》 등이 있고, 《통섭》 등의 책을 번역했다. 현재 이화여대 석좌교수로 자연사박물관장과 예코과학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 빠지면 자칫 과학의 저질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지론이다. 그래서 최 교수는 과학교양서를 쓰는 이들이 과학의 대중화보다는 '대중의 과학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대중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또 한 가지 과제가 있다. 바로 독자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이다. 그래서 최 교수는 책을 낼 때면 항상 자신의 이메일을 서문에 적어 넣는다. 출판사에서는 귀찮을 거라고 만류하지만, 우겨서라도 넣고야 만다. “내 책을 읽은 독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귀찮다고 그걸 포기하면 책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봐요.”

최 교수의 메일함에는 일주일이면 한두 건씩 책을 읽은 독자들의 메일이 도착한다. 특히 《개미제국의 발견》을 읽은 독자들의 경우 초중등학생들도 많은데, “어디서 보니 이렇다 더러” “개미를 키우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등 재미있는 질문도 많다. 물론 수준 이하의 질문에는 “책을 다시 보세요”라고 따끔하게 충고도 해준다.

사실 《개미제국의 발견》은 어쩌면 사소할지 모르는 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개미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 학생이 “인간과 개미가 대화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알고 보니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를 읽고 질문한 것이었지만, 최 교수로는 “나 스스로에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이어서 놀랐다”고 말한다. 거기서 자극을 받아 ‘진짜 재미있는 개미 이야기’를 써보자고 시작한 결과물이 바로 《개미제국의 발견》이다. 독자 혹은 강연을 듣는 이와 의 상호작용이 결국 한 시대를 풍미한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스테디셀러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책 같은 책 써야지?

그런 최 교수에게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책이 있다. 바로 《이기적 유전자》로, 최 교수는 이 책을 두고 “책 한 권이

인생관,
세계관을 뒤
바꾼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이 책
이 내게 그런 책”이라고
힘주어 강조한다. 뿐만 아니

라 기회 있을 때마다 《이기적 유전자》를 소개하는 글을 쓰고 강연도 한다. 제자들에게는 “《이기적 유전자》 읽어보지 않고 어디 가서 내 강의 들었다고 하지도 말라”는 엄명(?)까지 내려놓았다. 최 교수는 “밤새 읽고 새벽을 맞을 때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이라며 <출판저널> 독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했다.

또한 그의 하버드대학교 은사인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책들도 권했다. 화려한 문장은 아니지만 뜻과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되는, 과학분야 책에서 정확한 전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책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동거동락한 10년의 세월 동안 최 교수는 “뜻과 개념이 명확한 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맹이 있는 글들을 몸으로 체득했다”고 고백한다.

딱딱한 글을 써야만 논문 혹은 학술적 글쓰기를 한다고 평가받는 세상에서, 최재천 교수는 그 대세를 거스르고 있는 중이다. 자신이 지난 7년 동안 “극성스럽게 일”한 저술과 번역서, 감수한 책 등 수많은 결과물을 보면서도 “최 교수 이제 책 같은 책을 써야지” 하시는 분들에게 때론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그는 가야할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하다.

“연구도 그렇고, 책을 내는 것도 그렇고 내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것이 목적 아닌가요?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이미 죽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
문
】

취재 정동석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